

시모조 마사오의 논설을 분석한다

박병섭*

< 목 차 >

1. 머리말
 2. 시모조와 독도문제와의 관계
 3. 시모조와 일본 외무성과의 관계
 4. 시모조의 조선 사서에 대한 비판
 - (1) 『동국문헌비고』에의 비판
 - (2) 안용복 사건에 대한 비판
 - (3) 대한제국 칙령
 5. 시모조의 일본사에 대한 견해
 - (1) 에도 막부의 독도 인식
 - (2) 일본 외무성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 內探書)』
 - (3) 태정관의 「죽도 외 일도(竹島外一島)」 판도 외 지령(版 圖外指令)
 6. 결어
- * 표 「시모조 마사오 저작 일람」

1. 머리말

일본에서 독도(일본 이름, 다케시마)에 관한 논설을 가장 많이 발표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고 한다면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다쿠쇼쿠 대학(拓殖大學) 교수라 하겠다. 시모조가 쓴 저서와 논설

* 재일독도연구자

의 일람을 표로 나타내었는데, 특히 2005년 시마네현 조례 「다케시마의 날」 제정 이후에 많으며, 매년 5,6편의 논설을 발표하고 있다. 그것도 『제군(諸君)』과 『정론(正論)』 등 우익계의 2대 잡지에 발표된 것이 많아서, 전문가 이외로부터도 주목을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 많은 논설들 가운데에서, 특히 문제가 많은 주장을 중점적으로 비판하기로 한다.

최근 시모조의 발언은 이것저것 눈에 띄고 있어, 한국에서는 그의 발언을 마치 일본을 대표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특히 시모조 자신이 「다케시마의 날」 이전에 쓴 시모조의 논설은 일본에서는 완전히 소수의 의견일 뿐이다. 이것은 일본의 독도문제 연구 상황을 「다케시마 연구를 하고 있는 일본측의 연구자들은 조선사 연구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일본의 주장이 잘못되었고 한국의 주장이 옳바르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표의 저작기호2006C, P118)」라고 말한 것으로부터도 봐도 쉽게 추측이 된다.

또 시모조의 논설에서 유의해야만 하는 것은, 그것이 발표된 시기이다. 어떤 시기의 논설만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그의 의견이라고 볼 수가 없다. 시모조의 견해는 자주 바뀌기 때문이다. 예를 든다면 뒤에 언급하겠지만, 메이지(明治) 정부의 태정관(太政官) 지령에 등장하는 「외 일도 (外一島)」를, 어떤 때에는 불명이라고 했다가 또 어떤 때에는 독도라고 하고, 다시 어떤 때는 울릉도라고 하는 등 일관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모조의 논설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문헌자료의 자의적인 해석이다. 1996년에 그는 한국에서도 독도에 관한 견해를 잡지 『한국논단(韓國論壇)』에 발표했는데, 국방대학 김병렬(金炳烈)과 논쟁을 전개하여 그의 논조 스타일은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러한 시모조 식의 의견은 한국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외무성 등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상황은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계기로 바뀌어 가고 있다. 시마네현이 시모조를 다케시마 문제의 중심에 앉히고, 그의 주장을 인쇄물과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모조의

영향력은 높아져 가고 있다.

2. 시모조와 독도 문제의 관계

우선 시모조 마사오의 간단한 경력을 보기로 한다. 그는 고쿠가쿠인 대학(國學院大學) 대학원에서 일본사를 전공했으나, 박사 논문은 쓰지 않고 1982년에 한국으로 건너왔다. 이듬해 삼성종합연구소에서 주임강사로 근무하다가, 1994년 시립 인천대학교의 객원 교수가 되었다.

1995년 말, 한국 정부가 독도에 선박 접안시설을 건설하는 등 한일 관계가 시끄러워지자, 시모조는 이 무렵부터 독도문제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일본사를 전공한 그는 한국의 역사 자료를 분석하는 가운데 「한국측이 정확하게 과거의 문헌을 읽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러(2006C, P116)」, 그 고찰을 일본의 잡지 『현대 코리아』와 앞에서 말한 『한국논단』에 발표하였다. 그 논설은, 안용복이 본 우산도를 오키도(隱岐島)라고 하는 등 황당무계한 것이었으나, 한국에서 일약 주목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 후 시모조는 일본으로 귀국하여, 1994년 4월 다쿠쇼쿠 대학 국제개발연구소 교수가 되었다. 다쿠쇼쿠 대학은 특이한 역사를 가진 대학이다. 다쿠쇼쿠 대학의 전신은 타이완협회 학교(台灣協會學校)인데, 일본의 식민지인 타이완의 「개발」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1900년에 설립되었다. 1907년에는 개발의 대상을 대한제국 등 동양으로 넓히기 위해서, 이름을 동양협회 전문학교(東洋協會專門學校)로 바꾸었다. 나아가서 1918년에 이름을 식민지 개척이라는 의미가 담긴 다쿠쇼쿠(拓殖) 대학으로 개칭하였다.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지배와 깊은 관계를 가진 대학인 것이다. 전 수상인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가 학장을 지낸 적도 있다. 일본에서 다쿠쇼쿠 대학은 고쿠가쿠인 대학과 함께 우익 성향의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시모조는 다쿠쇼쿠 대학으로 전직하고 나서는 독도관계의 논설을 매년 수편씩 써 오다가, 2004년에 일본의 거대 출판사인 문예춘추사(文芸春秋社)에서 단행본 『다케시마는 일한 어느 쪽의 것인가(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를 발간하자, 각광을 받게 되었다. 그런 그에게 주목한 시마네현이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의 좌장을 맡겼다.

2007년 다케시마 문제연구회는 2년에 걸친 조사 연구 끝에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 최종보고서』(다음부터 『최종보고서』로 약칭한다.)를 시마네현에 제출하고 임무를 종료했다. 이 보고서의 형태는 연구회로서의 통일된 견해를 제시하지 않고 각 위원과 협력자에 의한 논문 및 자료를 모은 형태로 발간되었다.

그 후 시마네현은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를 계승하여 인터넷 중심의 「웹 다케시마 문제 연구소」를 발족시키고, 시모조를 소장으로 임명했다. 현재 그는 이 연구소의 홈페이지에서 「실사구시(實事求是)」라는 제목의 수상문(隨想文) 시리즈를 연재하면서, 그의 논적(論敵)인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나 필자, 혹은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동북아역사재단 등과 같은 제 단체를 비판하고 있다.

3. 시모조와 일본 외무성과의 관계

시모조와 외무성과의 관계는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도 문제에 관한 자신의 논설을 주한 일본대사관의 간부에게 전달한 것이 그 시작이다. 그때 대사관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2006C, P117). 당시의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에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이슈화되었을 때만 형식적인 항의를 한국정부에 하는 정도였다. 말하자면 조용한 외교정책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배경에는 독도문제에 관한 한일 간의 밀약이 있었던 듯하며,¹⁾ 마찬가지로 한국도 조용한 외교정책을 취하

1) 로-다니엘: 「다케시마밀약 일한 극비 메모를 밝힌다.」 『문예춘추』 2007. 9월호, 「독도 밀약」 『월간 중앙』 2007. 4월호, 214쪽.

고 있었다.

그러나 양국의 조용한 외교정책도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면서 전기를 맞이하였다. 이것에 한국 여론이 심하게 반발하여 끓어오르자, 그 여파는 일본을 자극하였다. 독도문제가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되면서 논설 등이 많이 발표되었다. 그때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선두에 섰던 것이 시모조 마사오이다. 그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일본 정부, 그 중에서도 외무성을 격렬하게 비판했다. 이를테면 「다케시마의 날」 제정 직후에, 시모조는 다음과 같은 현상 분석을 하면서 정부를 비판했다.

일본에는 다케시마 문제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부서가 없다. 그러면 일본 정부가 전략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것은 「다케시마의 날」의 제정을 전후하여 고쳐 쓴 외무성 홈페이지 기사에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새로운 홈페이지에서는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는 적극적인 표현을 취했으나,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측의 논거는 지난날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한국측이 납득할만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외무성의 조사원이었던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 씨가 1966년에 발행한 『다케시마의 역사지리학적 연구』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측의 다케시마 연구는 가와카미 겐조 씨 등의 연구 성과를 비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 때문에 한국의 인터넷에서는, 이미 외무성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일축하고 있는 것이다. …… 현 상황대로 다케시마가 일본령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으면, 일본측에 영토적 야심이 있다고 의심은 받아도 어쩔 수 없다.

일본측이 구태의연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다케시마 연구가 1960년대를 경계로 중단되고, 대신에 일본 국내에 다케시마를 한국령이라고 하는 연구가 몇 개인가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다.

이것은 외무성의 태만이라고 하기보다 일본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영토 문제라고 하는 국가주권에 관련된 문제가 한 정권의 정책에 맡겨져, 문제 해결이 뒤로 미루어져 온 것과는 관련이 있다.

더욱이 외교를 담당하는 외무성도, 수년에 한번 인사이드가 이루어

지는 현상에서는,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영토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이 차이가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래서 일본 국내에서는 과거의 역사 문제를 들어, 쉽게 정부 비판을 하는 풍조가 생겼다. 그것도 객관적 사실에 근거를 둔 논쟁이라면 환영할 수 있으나, 일방적인 비난이었다(2005D, P42).

시모조의 현상 비판은 외무성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일본에서 독도문제는 국민적인 관심이 비교적 적은데다, 해결의 전망이 어둡고, 노력해도 성과가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그렇게 곤란한 문제에 외무성은 유능한 인재를 오랫동안 담당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그 때문에, 외무성은 독도문제에의 대응이 소극적으로 되어 있었다. 이것은 한일 간의 「독도밀약」과 얽힌 것인지도 모르지만, 외무성 수뇌부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에 대해서조차 「실효적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을 현민(縣民) 감정만으로 정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 어떠한 것인가라고 생각한다.」고 냉담하게 돌보지 않고 있었다. 그런 외무성을 시모조는 이렇게 비판했다.

「다케시마의 날」이 성립되고 나서, 이 일 년 동안의 경과를 보고 있으면, 일본에는 외교라는 것이 전혀 없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외교에 종사하는 정치가·관계 당국이라는 사람들에게, 당사자 능력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졌다(2006B, P30).

이처럼 시모조는 「일본에는 외교가 없다.」 혹은 「당사자 능력이 없다.」 든가 일본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러한 독설에 대해 외무성은 거의 침묵하고 있다. 시모조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독도문제에서 외무성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다른 사정이 있는 듯하다. 외무성은 1950년대 주장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자승자박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 전형적인 예가 외무성의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는 주장이다. 이 견해에 나이트 세이추(内藤正中)·시마네 대학(島根大學) 명예교수 등이 역사 자료의 근거를 들어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잘 알려져 있는 대

로이다.²⁾ 그 때문에 시마네현에서조차 「고유영토론」을 취하지 않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마네현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는, 독도는 1905년 이전에 「무주지」였으므로, 일본의 고유영토는 아니었다고 하고 있다. 그것을 시모조가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오늘날의 다케시마는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시마네현(다케시마 문제연구회, 필자주)의 중간보고에서는 「고유영토론」을 취하지 않았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고, 외무성이 다케시마 관련 홈페이지를 「(한국이, 필자주) 불법점거하고 있다.」라고 고쳐 쓰고, 문부과학성이 다케시마를 「고유의 영토」라고 발언한다면, 한국측이 반론해도 당연한 것이다(2006E, P276).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가 「다케시마 고유 영토론」을 취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 시모조의 의견에 따른 부분이 많다. 그 때문에 시모조의 견해를 대폭적으로 받아들여 시마네현이 발행한 팸플릿 『포토 시마네』 161호 「특집 다케시마」에는 고유 영토라는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견해가 앞으로든 변하지 않을까 어떨까,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외무성이 말을 꺼낸 일본의 「고유 영토론」은 일본 국내에서 점점 활개치기 시작하여, 지금은 문부과학성이 교과서에 「고유 영토」의 기술을 하도록 지도하게까지 되었다. 그 때문에 외무성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어떠한 비판이 있든지 「일본의 고유 영토론」에서 간단히 물러설 수는 없는 정세이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를 비판해 온 시모조는, 최근에는 외무성에 독도관련 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가 작성한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 최종보고서』를 외무성 북동 아시아과로 제출했다.³⁾ 여기에 외무성도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외무성은 『최종

2) 内藤正中: 「竹島は日本固有領土か」, 『世界』, 岩波書店, 2005.6월호.

3) 『山陰中央新報』記事 「島根縣の竹島問題研究會が最終報告書を外務省へ提出」(2007.7.13) <http://www.sanin-chuo.co.jp/news/modules/news/article.php?storyid=4080>

보고서』에 있어서 시모조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2008년 2월에 팸플릿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를 일본어와 한국어, 영어로 제작했다. 그 중에 시모조의 주장이 어떻게 도입되어 있는지는 다음 절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4. 시모조의 조선 사서에 대한 비판

(1)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비판

시모조의 독도 문제 연구의 원점은 조선 사서(朝鮮史書)에 대한 비판에 있다. 그 동기는,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령이라고 하는 한국의 주장에 반론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자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의거하고 있는 조선 사서를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중에도 시모조가 특히 문제시한 것은 『동국문헌비고』에 기록된 「우산은 즉 왜가 말하는 마쓰시마이다(于山は則ち倭の所謂松島なり)」라고 하는 한 구절이다. 시모조는 그것은 날조되었다고 판단하고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한국측은 무엇을 근거로 독도를 울릉도의 속도라고 하는 것인가. 그 논거가 되어 있는 것이 1770년에 편찬된 『동국문헌비고』이다. 그 분주(分註)에는, 「여지에서서 이르기를, 嶺陵于山皆于山國地 °于山則倭松島」라고 하여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일본의 마쓰시마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동국문헌비고』는 신경준(申景濬)의 『강계지(疆界誌)』를 저본(底本)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저본의 『강계지』를 보면, 해당 부분에서는 「여지에서서 이르기를, 일설에 우산과 울릉은 원래 한 섬이다(輿地志云 一說于山嶺陵本一島)」라고 인용되어 있고, 『동국문헌비고』의 분주(分註)에 인용된 「여지」와는 문장이 다르다. 게다가 신경준의 『강계지』에 인용된 「여지」를, 원전인 류형원(柳馨遠)의 『동국여지(東國輿地志)』에서 확인해 보면, 거기에는 「일설에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한 섬이다(一說 于山嶺陵本一島)」가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동국문헌비고』에서 「우산도는 왜가 말하는 마쓰시마이다。」라고 기재된 분주는, 류형원의 『동국여지』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동국문헌비고』의 편찬 과정에서 날조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이라고 하여, 6세기 이래 한국의 영토라고 하는 한국측의 근거는 무너져 버린 것이다(2007B, P3).

이 문장에서 특필해야 하는 것은, 『동국문헌비고』가 인용한 『여지』의 본래의 기술은 우산도와 울릉도를 동일한 섬이라고 시모조가 생각한 점이다. 이것은, 그의 저서 『다케시마는 일한 어느 쪽의 것인가』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그는 이 책에서 “오리지널의 『여지』에서는, 「일설에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한 섬이다。」이라고 하여, 우산도와 울릉도는 같은 섬의 다른 이름(同島異名)이라고 하고 있다(2004A, P100)” 고 적은 것이다.

시모조의 이 견해는, 그대로 외무성의 최근 홍보 간행물에 받아들여졌다. 외무성이 처음으로 간행한 팸플릿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에 「이것(한국의 주장, 필자 주)에 대해, 『여지』의 본래의 기술은, 우산도와 울릉도는 동일한 섬이라고 하고 있으며, 『동국문헌비고』 등의 기술은 『여지』에서 직접, 올바르게 인용된 것은 아니라고 비판하는 연구도 있습니다。」라고 기록되었다. 확실하게 시모조의 논설이 인용된 것이다.

이처럼 외무성은 시모조의 논설을 전혀 검증하지 않고 인용하였는데, 원래 시모조의 논설은 잘못된 것이다. 『여지』, 곧 유형원(柳馨遠)의 『동국여지』는 동도이명설(同島異名說)을 본설로 한 것이 아니라, 우산도와 울릉도를 별개의 섬이라고 하는 이도설(二島說)을 본설로 하고 있다. 즉 『동국여지』의 기술은 아래와 같이 표제어부터 우산도·울릉도라는 두 섬으로 되어 있다.

우산도·울릉도

일설에 무릉(武陵)이라고도 하고, 일설에 우릉(羽陵)이라고도 한다. 두 섬이 고을 바로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세 봉우리가 곧게 솟아 하늘에 닿았는데 남쪽 봉우리가 약간 낮다. 바람과 날씨가 청명하면 봉우리 머리의 수목과 산 밑의 모래톱을 역력히 볼 수 있으며 순풍

이런 이틀에 갈 수 있다. 일설에는 우산 울릉이 원래 한 섬으로서 지방이 백 리라고 한다.

이 문장은 관찬서(官撰書)인 『동국여지승람』과 완전히 같다. 그렇다고 해서 표절은 아니다. 원래 『여지지』는 그 「범례」에 (본문에 대한) 설명문에 있는 것처럼, 목적은 『동국여지승람』을 「증수(增修)」하는데 있었다. 당시 명저인 『동국여지승람』은 중정판의 출판 후 100년 이상이나 경과하였고, 그 사이에 사회의 변동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증보를 목적으로 『여지지』가 편찬된 것이었다. 따라서 우산도와 같이 변동이 없는 기술은 그대로 쓰이게 되었다.

요컨대 『동국여지승람』도 『여지지』도 우산도와 울릉도를 별개의 섬이라 하였고, 일도설(一島說)을 단순한 일설로써 기록하였다. 따라서 시모조의 두 섬을 「동도이명」이라고 하는 해석은, 명확하게 인용의 잘못이다. 시모조는 『여지지』에 쓰인 일설의 기술만을 들어, 『여지지』의 견해와는 정반대의 견해를, 정말로 『여지지』의 견해인 것처럼 적은 것이었다. 이렇게 자료의 일부를 자의적으로 들어,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시모조의 특징이다.

여기에서 다시 『여지지』와 『강계지』 및 『동국문헌비고』의 관계를 정리하겠다. 『여지지』는 신경준에 의한 『강계지』 및 관찬서인 『동국문헌비고』의 분주(分註)에 다음과 같이 인용되었다.

『강계고(疆界考)』(1756년)

살피건대 여지가 말하기에는 일설에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한 섬이다. 그런데 제 도지를 살펴보니 두 섬이다. 한 섬은 곧 왜의 소위 마쓰시마이다. 살피건대 두 섬은 모두 이 우산국의 영토이다.

『동국문헌비고』 「여지지輿地考」(1770년)

여지에서 말하기에는 울릉·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다. 우산은 즉 왜가 말하는 바의 마쓰시마이다.

일반적으로 고문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에서도 구두점(句讀點)이 일체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서도 분주(分註)의 어

디까지가 인용이며, 어디로부터가 신경준의 견해인가가 명확하지 않다. 『여지지』의 원문을 참조하면, 『강계고』의 경우는 시모조가 지적했듯이 「일설에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한 섬이다。」가 『여지지』의 인용문이고, 그 이하는 신경준의 견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신경준은 『여지지』와 『동국여지승람』에 일설로써 쓰인 동도이명설을 부정하기 위해, 고의로 『강계고』에서 그 일설을 특별히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시에는 본설인 이도설은 자명한 것이었기 때문인지, 분주에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동국문헌비고』의 경우는, 「울릉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다。」가 인용문이고, 그 이하의 「우산은 곧 왜가 말하는 바의 마쓰시마이다。」는 신경준의 견해라는 것이 『여지지』로부터 알 수가 있다. 물론 시모조 마사오가 선전하는 것 같은 사서(史書)의 「날조」와 「개찬(改竄)」은 없었다.

(2) 안용복 사건에 대한 비판

관찬서인 『동국문헌비고』에 「우산은 왜가 말하는 마쓰시마」라고 적힌 것은, 분명히 안용복 사건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시모조는 안용복의 비변사에 있어서 공술(供述)에 주목하여, 그것이 얼마나 허위에 찬 것인가를 역설하게 됨으로써, 『동국문헌비고』 등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였다.

안용복의 인식에서, 그가 「자산(子山, 우산)은 왜가 말하는 마쓰시마」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1696년의 두 번째로 일본으로 갔을 때였다. 그 해 5월, 안용복은 다케시마(울릉도)로부터 마쓰시마(자산도)를 경유하여 오키도(隱岐島)와 돛토리번(鳥取藩)으로 갔는데, 오키도에 안용복이 「마쓰시마는 자산도이다。」라고 공술한 기록이 남아있다. 그 기록은 무라카미가 문서(村上家文書)라 불리는데, 정식 이름은 「겐로쿠 9(병자)년 조선주 착안 일권지 각서 元祿九丙子年 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이다. 이 기록에 있어서, 안용복은 다케시마, 마쓰시마의 위치에 대해 「다케시마와 조선 사이는 30리(120km),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사이는 50리(200km)」라고 진술했

으므로,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는 오늘날의 울릉도와 독도를 가리키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더욱이 안용복이 실제로 마쓰시마로 건너갔던 것도, 무라카미가 문서에 그의 공술로써, 「5월 15일 다케시마 출발, 같은 날 마쓰시마에 도착」이라고 기록되었으므로 거의 틀림이 없다. 안용복은 오늘날의 독도를 마쓰시마(자산도)라고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모조는 안용복의 제 1차 도일(渡日) 때에 있어서 우산도 인식을 들고 나와서, 안용복이 말하는 우산도는 오키도이다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어째서 안용복은 우산도를 일본의 마쓰시마(현재의 다케시마)라고 생각한 것일까. 거기에는 오야가(大谷家)의 어부들에 의해 일본으로 끌려갔을 때의, 안용복의 체험이 깊이 관여되어 있었다.

『변례집요(邊例集要)』에 의하면, 일본으로 끌려갔을 때, 안용복은 울릉도를 출항하여 「하루 밤을 지나 다음날 저녁 식사 후, 황혼의 해상에서 울릉도보다 「훨씬 큰 섬」을 목격했다. 울릉도를 나선 것이 4월 18일 오후 2시 무렵, 오키도의 후쿠우라(福浦)(현재의 고카무라(五箇村))에 도착한 것이 20일, 따라서 안용복이 말하는 「다음날 저녁 식사 후」는 19일 저녁 식사 후를 말하는 것이 된다. 울릉도에 있었을 때, 자산도까지는 거의 「하루의 거리」라고 목측하고 있었으나, 다음날은 오키도에 도착한다고 하는 직전의 저녁, 거의 「하루의 거리」로 안용복은 「훨씬 큰 섬」과 조우했던 것이다. 안용복은, 이 섬을 일본인이 말하는 바의 마쓰시마(오늘날의 다케시마), 조선에서 말하는 자산도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울릉도로부터 「하루의 거리」에 있는 훨씬 큰 섬은, 조선의 땅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울릉도에서 돛토리번에 이르는 사이에 울릉도보다 「훨씬 큰 섬」은 오키도 이외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 한일 분쟁의 땅이 되어 있는 다케시마는, 울릉도보다도 훨씬 작은 섬이다. 실제로 뱃멀미로 배 안에서 누워있던 박어둔(朴於屯)도 울릉도의 「전후, 그 위에 다른 섬은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아마 안용복은, 오키도를 우산도라고 오인했을 것이다(2004A, P71).

시모조는 안용복이 우산도를 울릉도의 동북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울릉도의 동남에 있는 독도는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같은 동남에 있는 오키도를 독도와 관계없다고 하지 않고, 안용복의 공술에서 「훨씬 큰 섬」이라고 하는 부분만을 중시하여, 안용복이 본 우산도를 오키도라고 강변한 것이다. 이 주장은 황당무계하다고 하여,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는 아래와 같이 지적하였다.

안용복을 거짓말하는 버릇이 있는 인물로 평가하는 흐름은, 최근에는 시모조 마사오로 대표된다. 하지만 이를테면 안용복이 본 마쓰시마는 다케시마/독도가 아니라 오키도였다고 하는 시모조 마사오의 주장은 황당무계하다.

안용복이 다케시마(울릉도) 및 오키제도와 구별된 섬으로써 마쓰시마(현재의 다케시마/독도)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오키의 무라카미 스케쿠로가(村上助九郎家) 문서에 의해 확실해졌는데, 애초부터 그 주장은 『변례집요(邊例集要)』의 오독(誤讀)에 기초한 오류였다. 이러한 오류가 야기된 배경에는 안용복을 거짓말하는 버릇이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과도한 평가에 구애된 것이었다. 4)

이케우치가 지적하는 것처럼, 시모조가 안용복을 거짓말하는 버릇이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데에 집착하는 것은, 안용복의 증언이 관찬사서(官撰史書)에 받아들여져 영웅으로서의 안용복 상(像)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에 대한 반발이 있던 것 같다. 그는 궁극적으로 안용복을 거짓말을 잘하는 인물로 만들기 위해, 안용복의 공술을 평하여 「울릉 우산 양도 감세(鬱陵于山兩島監稅)」라는 관명을 사칭한 것과 (안용복, 필자 주) 자신이 가마를 타고 다른 사람은 말을 타고 돛토리 성시(城市)로 들어갔다고 하는 증언 외에는 전부 거짓말(2006D, P12)이라고 극론(極論)한 것이다. 그 결과 안용복을 「모든 악의 근원」 취급을 하여, 이렇게 기술하였다.

다케시마 문제에 있어서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도 해야만 하는 인물이 있다. 1696년 일본에 밀항한 안용복이라는 천민(賤民, 사노(私奴))으로, 그는 조선에 귀환한 후 조사를 받아 「돛토리번과 교섭하여 울릉도와 마쓰시마(현재의 다케시마)가 조선령이 되었다」라고 공술

4) 池内敏: 「隱岐・村上家文書と安龍福事件」, 『鳥取地域史研究』 9호, 2007, 14쪽.

했으며, 「마쓰시마는 곧 우산도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었다. 안용복 증언은 관찬 『속중실록』에도 기록되었고, 이맹휴(李孟休)가 예조(외교와 의례를 담당) 문서를 정리한 『춘관지(春官志)』(1745년序) 안에, 「울릉도쟁계 鬱陵島爭界」로 정리했기 때문에, 영웅으로서의 안용복 상(像)이 확립해 가는 계기가 되었다(2007D, P99).

확실히 안용복의 공술 중에는 의문시되는 내용도 많다. 그는 해금(海禁)의 죄를 범하면서까지 일본으로 도항했기 때문에, 그 죄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야만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공술하거나 자신의 공적을 과대하게 포장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또 잘못된 기억과 이문화(異文化)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착각 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공술을 충분히 검증하여, 역사의 사실을 탐구하는 것이 역사가의 역할이다. 그러한 충분한 검증 속에서 발견되는 견해는 그 나름의 무게가 있어 쉽게 뒤바뀔 수 없는 것인데도, 시모조의 경우는 위의 오키도설도 어느 사이엔가 철회한 모양으로 최근에는 이를 대신한 「죽도(죽서 竹嶼)」 설을 다음과 같이 주창하고 있다.

안용복은 어째서 「우산도는 마쓰시마」라고 한 것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최종 보고서에 수록한 『다케시마 기사(竹島紀事)』에 있다. 막부의 명령을 받아, 조선측과 교섭한 쓰시마번은, 교섭의 경위를 문헌을 중심으로 편년체로 정리하여 『다케시마 기사』를 만들어 두었다.

그 가운데에는, 쓰시마번의 조사를 받은 안용복의 증언도 기록되어 있어, 우산도에 대한 안용복의 지견(知見)을 알 수 있다. 거기에 따르면, 안용복은 울릉도로부터 「북동쪽 언저리에 큰 섬이 있다.」, 「그 섬을 아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산도라고 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 증언으로 보더라도, 안용복이 주장하는 우산도는 오늘날의 다케시마가 아니다. 안용복이 본 것은, 지도상에 「이른 바 우산도(所謂于山島)」라고 기록된 죽도(竹嶼)이다. 죽도는 안용복이 어업 활동을 하고 있던 울릉도 저동(苧洞)에서 동북쪽에 위치하고, 다케시마는 울릉도의 동남쪽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산도를 마쓰시마라고 한 안용복의 증언은, 『동국문헌비고』의 분주에 실려, 역사적 사실이 되

어 버렸다(2007B, P4).

시모조는 이전과 같은 자료를 사용하면서, 이번에는 「훨씬 큰 섬」보다는 방향을 절대시하여, 안용복이 말하는 우산도를 쉽게 한국 이름의 죽도라는 결론을 냈던 것이다. 이처럼 시모조는 그때 그때에 따라 주안점을 바꾸어, 전과는 다른 결론을 안이하게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적은 주장도 타당한 것은 아니다. 시모조는 방향을 절대시하고 있으나, 해상에서는 멀리 있는 섬의 방향과 위치는 틀리기 쉬운 것이 통례이다. 그러한 사정과 다른 자료 『다케시마 기사』 등을 충분히 검토하면, 안용복이 제1차 도일 시에 본 우산도는 역시 오늘날의 독도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 『다케시마 기사』에 따르면, 쓰시마번은 안용복의 제1차 도일 시에 독자적인 조사를 행하여, 울릉도 북동에 희미하게 보이는 부룬세미라고 하는 섬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 부룬세미는, 안용복이 울릉도 북동으로 하루의 거리라고 본 우산도라고 생각된다. 그 상세한 것은 별고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겠다.⁵⁾

또 일본 정부의 독도문제에서 브레인이었던 다가와 코조(田川孝三)도 그렇게 이해하여, 「이 조건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이 다케시마(리앙쿠르 섬) 이외에서 찾을 수는 없다. 즉 우산도는 이 다케시마로 비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⁶⁾ 다가와가 말하는 「이 조건」이란 「울릉도의 북동쪽에 실제로 두 번 목격한 섬이 우산도라는 것을 들었는데, 그 거리는 대체로 하루의 거리이고 큰 섬이다.」라고 하는 안용복의 공술을 가리키는 것이다. 다가와와의 견해는 타당하다.

결국 시모조는 안용복이 말하는 우산도가 독도가 아니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큰 섬」이나 「동북」 등을 이유로 하여, 그때 그때에 따라 오키도라든가, 죽도(죽서)라든가 주장을 바꾸었던

5) 박병섭, 『안용복 사건에 대한 검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14쪽.

6) 田川孝三: 「于山島について」 『竹島資料』(10), (島根縣立圖書館所藏, 1953, 100쪽.

것이라고 생각된다.

1696년 10월, 안용복은 제2차 도일의 귀국 후에 비변사에 체포되었다. 그때의 공술에서 그가 실제로 갔던 자산도는 일본에서 말하는 마쓰시마이고 조선령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동국문헌비고』뿐만 아니라, 지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때까지 애매했던 우산도의 방향이 실제로 합치하여 울릉도의 동쪽에 그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항상 우산도의 인식이 올바르게 지도에 반영되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1711년에 울릉도 수토관(搜討官)이었던 박석창(朴錫昌) 등이 작성한 『울릉도도형(鬱陵島圖形)』이다. 그 지도에서는 울릉도 동쪽에 작은 섬이 그려져, 「해장죽전 소위우산도(海長竹田 所謂于山島)」라는 문자가 기입되었다. 이것에 대해, 오상학은 「이 섬은 그려진 위치와, “바닷가에 길게 대밭이 있다.”고 하는 주의 기록(註記)로부터 본다면, 울릉도 본섬에서 4km 정도 떨어진 죽도로 추정된다.」고 해석하였다⁷⁾. 웬일인지 박석창은 우산도와 죽도(죽서)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울릉도 수토관들 가운데에는 장한상(張漢相)과 같이 독도를 올바르게 인식했던 관리도 있었다. 장한상은 울릉도의 진(辰, 동남동) 방향 3백 여리(120km)에 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울릉도 사적(蔚陵島事蹟)』에 기록했다. 이처럼 우산도 확인의 실상은 수토관에 따라 제각각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시모조는 장한상이 확인한 섬의 이야기에는 절대 언급하지 않고, 우산도를 오인한 박석창을 대서특필하는 것이다. 더욱이 시모조는 그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다른 지도에 그려진 우산도도 죽도(竹嶼)라고 확대 해석하여, “『울릉도 도형(鬱陵島圖形)』의 「소위 우산도」라고 부기(付記)된 작은 섬이 김정호의 『청구도(靑丘圖)』에서는 우산도가 되었고, 대한제국의 학부편집국이 1899년에 간행한 『대한전도(大韓全圖)』에서도 우산도라고 하여 계승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2007B, P3). 그러나 『청구도』이든 『대한전도』이든, 울릉도 주변의 섬에 관한 한, 정확성이 결여된 그

7) 오상학: 「조선시대 지도에 표현된 울릉도-독도 인식과 변화」, 『문화역사지리』 제18권 제1호, 2006, 87쪽.

림지도(繪圖)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그림지도로부터 우산도를 죽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 (3) 대한제국 칙령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개칭하고 그 관할 구역을 「울릉도 전도」와 「죽도」, 「석도(石島)」로 하였다. 이 석도는 오늘날의 독도이며, 대한제국이 독도를 지배한 유력한 근거가 된다. 하지만 시모조는 여기에도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처음에 석도는 울릉도 바로 옆에 있는 관음도(觀音島)라고 단정하여 이렇게 적었다.

더욱이 「칙령41호」에 기재된 다케시마는 오늘날의 죽도였기 때문에, 석도는 오늘날의 관음도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독도(다케시마)에서 강제잡이를 시작하는 것은 「칙령41호」가 공포된 3년 후(1903년)으로, 그 이전에는 절해(絶海)의 고도였기 때문이다(1999A, P52).

이처럼 시모조는 석도와 관음도를 직접 연결시키는 문헌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한국은 「절해의 고도」인 독도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단순한 추정으로 석도는 관음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연 시모조는 이 주장을 근거박약이라고 생각했던 것인가, 이윽고 견해를 바꾸어 「석도는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여, 이렇게 말했다.

1900(메이지 33)년 대한제국은 우용정(禹用鼎)을 울릉도로 파견하여, 그 보고를 토대로 하여 10월 25일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군수의 상주를 결정했다.

그때 대한제국 정부는 「칙령41호」를 공포하여, 울도군의 행정 구역을 「울릉도 전도와 죽도, 석도」로 정했다. 정부의 인식으로는 울릉도에는 죽도와 석도라고 하는 두 부속 섬이 있었던 것이 된다.

그러나 이 「칙령41호」에는, 부속 섬의 위도와 경도까지는 명기되어 있지 않아, 죽도와 석도가 실제로 어디의 섬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

한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

오늘 날의 다케시마는 당시에는 아직 다케시마라고 불리지 않았고 옛날에는 마쓰시마, 그 무렵에는 한일 양국이 모두 랑코섬이라고 부르고 있었으므로, 「칙령41호」에 있는 죽도는 이규원(李奎遠)의 조사에서도 「죽도」라고 불린 울릉도 근방의 죽서(竹嶼)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석도는 어디를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다(2004A, P112).

시모조가 석도를 관음도라고 하는 설을 철회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양자를 연결시키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1882년에 검찰사(檢察使) 이규원은 울릉도를 조사하고 그림지도 『울릉도외도(鬱陵島外圖)』 등을 그렸는데, 이 그림지도에서 현재의 관음도는 도항(島項)이라고 기록되었다. 그 후 울릉도 개척령(開拓令)이 내려져 울릉도에 개척민이 입도하게 되었는데, 개척민은 이 도항을 각새섬이라고 불렀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며, 관음도가 석도라고 불렀던 흔적은 전혀 없다. 그 때문인지 시모조는 위와 같이 석도는 불명이라고 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는 한번 철회했던 관음도설을 최근에 다시 끄집어내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칙령제41호의, 필자주) 다케시마는 죽서(한국 이름, 죽도). 석도는 이규원이 도항(島項)이라고 보고한 지금의 관음도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2006D, P22).

시모조는 여기에서도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자기의 설을 다시 바꾸었다. 이것은, 앞서 발표한 설 등이 근거가 없는 단순한 추정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과 같다. 이 문제에서도 시모조에게는 정설이 없는 것이다.

시모조와는 별도로, 이 문제를 일본인 연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하겠다. 호리 가즈오(堀和生)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같으나, 많은 일본인 연구자는 석도를 독도로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지무라 히데데루(梶村秀樹)와 나이토 세이추(内藤正中), 오니시 토시키(大西俊輝) 등이 석도를

독도라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독도를 일본령이라 주장하는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는, 당초는 「칙령의 석도가 그(울릉도) 주변의 암초도의 총칭 내지는 대표격인 관음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시 다케시마인 것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지금 좀 더 증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라고 하여 판단을 보류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심홍택 군수의 독도 보고(1906년)와 관련하여 석도는 독도라고 단정하고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군수가 해당 섬(독도, 필자 주)을 「본군 소속」이라고 한 것은, 앞의 칙령의 제2조에 「군청 위치는 태하동(台霞洞)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하는 것」이라고 한 것에 의한다(돌을 방언으로 독이라고 한다는 점에서 독(獨)과 상통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

독도(獨島, 법령상 글귀는 석도)를 관할한다는 내용의 칙령을 제정 공포한 것은……⁸⁾

쓰카모토의 설은 타당하지만, 모든 연구자가 석도를 독도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직접 나타내는 자료의 발굴이 필요하다. 그것이 명확히 제시된다면, 시모조와 시마네현이 주장하는 「1905년 이전 다케시마는 무주지였다.」라고 하는 주장이 완전히 부정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5. 시모조의 일본사에 대한 견해

(1) 에도 막부의 독도 인식

에도시대 독도는 일본에서 마쓰시마, 울릉도는 다케시마라고 불

8) 塚本孝: 「日本の領域確定における近代國際法の適用事例」『東アジア近代史』(3号), 2000.3, 89쪽.

리고 있었다. 돛토리현(鳥取県) 호키국(伯耆國) 요나고(米子)의 상인인 오야 진키지(大谷甚吉)는, 오야가(大谷家)의 전기에 의하면 우연히 다케시마(울릉도)로 표류하여, 그 섬이 어패류 등의 자연산물이 풍부한 무인도라는 것을 알았다고 되어 있다. 오야가는 다케시마의 산물을 채취하여 장사를 하기 위해서 1625년 무렵, 무라가와가(村川家)와 협력하여 돛토리번(鳥取藩)을 통해 에도 막부로부터 「다케시마 도해 허가」를 받았다. 이후, 안용복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양가는 매년 울릉도로 출어했다.

그러한 실상은 오키국(隱岐國)에도 잘 알려져, 1667년에 이즈모 번사(出雲藩士)인 사이토 토요노부(齊藤豊宣)가 번의 명령에 따라 편찬한 『인슈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국대기(国代記)에 오야무라가와가(家)가 다케시마에 도해한 것 등이 기록되었다⁹⁾. 이 사서는 일찍이 한일 두 정부 사이에서 독도의 영유권 논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의 독도 영유의 유력한 근거가 되었던 책이다. 일본 정부가 인용한 『인슈시청합기』 「국대기」의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슈(隱州)는 북해 가운데 있는데, 오키도(隱岐島)라고도 한다. …… 서북쪽으로 1막 2일을 가면 마쓰시마(松島)가 있다 또 하루 정도 거리에 다케시마(竹島)가 있다(속언으로는 이소타케시마(磯竹島)라고 한다. 대나무와 물고기, 물개가 많다.). 이 두 섬은 무인도이다. 고려(高麗)를 보는 것이 마치 운슈(雲州)에서 오키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한즉 일본의 서북은 이 주(此州)를 한계로 삼는다.

이 문장의 마지막 부분 「일본의 서북(乾地)은 이 주(此州)를 가지고 한계로 삼는다.»에 있어서, 일본 정부는 「차주(此州)」를 「이 섬」이라고 읽어, 다케시마가 일본의 서북 한계라고 주장했다. 이 설은 처음에 다가와 코조가 말한 설이지만,¹⁰⁾ 다가와가 사망하고

9) 최근의 시모조는 『인슈시청합기』의 저자를 사이토 토요히토(齊藤豊仙)라고 썼는데 오니시(大西)의 아래 저서에 따르면 올바른 것은 사이토 토요노부(齊藤豊宣) 또는 간스케(勘助), 후쓰칸(仏緩), 유가이(遊外)라고 추정된다. 토요히토는 토요노부의 아들이다(大西俊輝: 『續日本海と竹島』, 東洋出版, 2007, 15쪽).
10) 田川孝三: 「竹島領有に關する歴史的考察」 『東洋文庫書報』(20) 1988, 43쪽.

지금에는 시모조 혼자 주장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차주를 이 섬이라 읽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것은, 이케우치 사토시에 의해 면밀하게 논증되었다. 이케우치는 『인슈시청합기』에서 「주(州)」와 「도(島)」의 사용례를 모두 조사하여, 용어상에서 「차주」를 이 섬이라고 읽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였다. 더욱이 국대기의 문맥상에서도 이 섬이라고 읽는 것은 무리이고, 「일본의 북서의 땅은 오키주(오키국)을 가지고 한계로 한다.»라고 밖에 읽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¹¹⁾ 이 이케우치 논문이 발표되자, 그때까지 차주를 다케시마라고 해석했던 나이토 세이추도 자신의 설을 고쳐 차주를 인슈, 즉 오키국이라고 해석했다¹²⁾.

그 뒤 1823년에 『인슈시청합기』를 옮겨 적으면서, 더욱 상세한 내용을 덧붙인 『오키고기집(隱岐古記集)』을 편찬한 오니시 노리아스(大西教保)는 문제의 부분을 「일본의 건(乾, 북서)의 땅, 차국(此國)을 가지고 한계로 한다.»라고 기록하여, 국대기의 차주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국, 즉 오키국이라고 읽었다. 나아가서 덧붙이자면 오니시의 자손으로 『인슈시청합기』를 철저히 분석한 오니시 도시테루(大西俊輝)도 차주를 인슈라고 해석하였다.¹³⁾

더욱이 에도 시대로부터 메이지 시대에 걸쳐서 작성된 『대일본사(大日本史)』의 해석도 참고가 된다. 이 책은 『인슈시청합기』를 인용하여 오키국의 부속 섬은 179개로 오키소도(隱岐小島)라고 불린다고 했으며, 이 외에 마쓰시마·다케시마가 있다고 기술했다. 즉 이 책은 『인슈시청합기』에서는 마쓰시마·다케시마를 오키국의 부속도로 하지 않았다고 해석했던 것이다.¹⁴⁾

덧붙여서 이런 생각은 메이지 시대의 관찬지지(官撰地誌)인 『일본지리지요(日本地誌提要)』와도 공통된다. 『일본지리지요』는 오키소도 179개를 혼슈(本州)의 부속 섬이라고 하였고, 그 이외에 마쓰시마·다케시마가 있다고 했다. 마쓰시마·다케시마가 혼슈에 속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일본령에도 속하지 않는다.¹⁵⁾

11) 池内敏: 『大君外交と「武威」』, 名古屋大學出版會, 2006, 323쪽.
12) 内藤正中・金炳烈: 『史的檢證竹島・獨島』, 岩波書店, 2007, 22쪽.
13) 大西俊輝: 『前掲書』, 34쪽.
14) 박병섭·나이토세이추, 『독도=다케시마 논쟁』 보고서, 2008, 14쪽.

이처럼 에도 시대와 메이지 시대의 일본인 학자들은 차주를 인슈(오키국)으로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모조는 그것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설만을 고집하여 반론을 쓰고 있다(2007E, P293). 그것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A. 문장의 마지막에 있는 「한계로 한다.」의 주어는, 바로 앞에 있는 「이 두 섬」이다.
- B. 오키도의 북서쪽에 있는 울릉도에서 고려(조선)가 보이는 것이, 「차주(島)」를 일본의 서북 한계로 하는 조건이 되어 있는 것이다.
- C. 이국인 조선을 보고 있는 장소는, 당연히 일본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 D. 『일본국기(日本国記)』(「오키국」조)에도 「오키의 해상에 다케시마(현재의 울릉도)가 있으며, 대나무가 많고, 전복이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저자는 「다케시마(울릉도)」를 일본령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 E. 이국에의 도해는 금지되어 있던 시대에, 다케시마(울릉도)가 조선령이라면, 「다케시마 도해」가 인정되었을 리가 없다.
- F. 이케우치 사토시에 의한 「차주」의 모든 용례의 비교 검토는 『인슈시청합기』와 같이 일본문과 한문이 혼합하여 통일되지 않은 문장과, 연대가 다른 문헌을 모아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

위에서 (A)-(C)는 이케우치에 의해, 이미 반론된 바 있다. 그것에 의하면, 시모조의 주장은 『인슈시청합기』에 「다케시마(울릉도)가 일본령이라고 쓰여 있다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오독(誤讀)에 지나지 않는다.¹⁶⁾ 다음으로 (D)인데, 「오키의 해상에 다케시마가 있다.」라고 하는 문구로부터 다케시마를 일본령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아전인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또 비록 『일본국기』의 저자가 다케시마는 일본령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더욱이 사이트 토요노부가 그 책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키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이트 토요노부가 『일본국기』의 저자와 같은 인식이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E)인데, 막부에 의한 특별 허가를 얻어 도해하는 것과 같은 다케시마(울릉도)를 그대로 일본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급하다. 실제 사이트 토요노부는 다케시마를 막부의 주인(朱印)을 가진 배, 즉 주인선(외국무역선)이 가는 것과 같은 섬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¹⁷⁾ 따라서 시모조의 견해는 무리가 있다. (F)에 관해서는 단순히 논점이 빗나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또한 「차주」를 「이 섬」이라고 읽는 일본 정부의 해석을, 한국 정부는 오독이라고 지적하였으나, 그에 대한 일본 정부로부터의 반론은 없었다. 이것은 암묵적으로 한국 정부의 지적을 일본 정부가 용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일 양국 정부의 논쟁에 부연한다면, 일본 정부는 가와가키 겐조가 주장한 「마쓰시마 도해 면허」를 오야·무라가와 양가가 얻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면허에 대해서 시모조 마사오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에서는 「마쓰시마 도해 면허」의 존재를 신뢰하는 학자도 있으나,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쓰카모토 다카시와 이케우치 사토시 등에 의해 부정되고 있으며, 「마쓰시마 도해 면허」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 일본의 통설로 되어 있다. 그 때문인지 최근의 외무성과 시마네현은 「마쓰시마 도해 면허」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2) 외무성 보고

『조선국 교계 시말 내탐서(朝鮮国交際始末内探書)』

1868년 일본은 메이지 유신에 들어가 국가의 통치 기구가 일변했다. 그때까지 쓰시마번이 담당해 온 조선과의 외교는 외무성이

15) 朴炳涉: 「明治時代の資料からみた独島の帰属問題」 『獨島研究』(3号), 嶺南大学独島研究所, 2007, P211, 번역은 같은 책의 P202.

16) 池内敏: 前掲書, 346쪽.

17) 『인슈시청합기』 「치부리군(知夫郡) 다쿠히산(燒火山) 연기(緣起)」에, 「호키의 대상(大商) 무라가와 씨, 관으로부터 주인을 받아 큰 배로 이소다케시마에 이르다(伯耆の国の大賈 村河氏, 官より朱印を賜り大船を磯竹島に致す)」라고 기술되어 있다.

직접 하게 되었다. 외무성은 그때 비로소 조선으로 관리를 파견하여, 조선의 실상을 조사했다. 조선의 조사 여행에서 돌아온 사다 하쿠보(佐田白茅)는 1870년에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를 제출했는데, 그 가운데에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조선 부속이 된 시말(竹島松島朝鮮附屬ニ相成候始末)」이라는 보고가 있다. 이 자료에서 조선의 부속으로 된 다케시마는 울릉도, 마쓰시마는 독도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 연구자들 대부분의 견해이지만, 이것에 관해서 시모조는 처음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 보고의 마쓰시마가 오늘날의 다케시마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사다 하쿠보가 「지금까지 기재한 서류도 없다.」라고 기술했을 리가 없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다케시마를 가리키는 마쓰시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기재한 서류」가 여럿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들 사실은, 사다 하쿠보가 말하는 마쓰시마가 현재의 다케시마와는 무관하다는 것의 증거이다. 에도 막부가 도해를 금지한 것은 울릉도였으며, 현재의 다케시마로 도해를 금지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도, 일본측이 오늘날의 다케시마를 일본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2004A, P107).

이와 같이 시모조는 마쓰시마를 독도와는 무관하다고 적었다. 또 그는 위의 문장에서 에도 막부가 「오늘날의 다케시마를 일본령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으나, 이것은 오인이다. 에도 막부는 안용복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마쓰시마(독도)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것이다. 그 때문에, 막부는 돗토리번에서 보낸 서류에 마쓰시마의 이름이 새로 등장한 것에 흥미를 가지고, 그 섬이 어떤 섬인지 돗토리번에 질문을 했을 정도이다. 것처럼 무지했던 마쓰시마에 막부가 영유 의식을 가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더욱이 돗토리번이 다케시마·마쓰시마가 돗토리번의 땅이 아니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막부는 쟁점이 되었던 다케시마를 조선령으로 인정했다. 따라서 같은 돗토리번의 땅이 아닌 마쓰시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인정했다고 해석해야만 할 것이다.¹⁸⁾

이 때 막부가 마쓰시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단순히 쟁점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에 덴포기(天保期)에 있어서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에서는 「먼 바다로의 항해」가 금지되었으나, 그 가운데에 마쓰시마에의 도해 금지도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막부는 마쓰시마(독도)를 이국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모조는 위에 적은 견해를 발표하고 나서 2년 후에 자신의 설을 바꾸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1870년에 조선의 시찰에서 귀국한 외무성의 사다 하쿠보가 보고를 행한다. 타이틀은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조선의 부속이 된 시말.」다케시마(현재의 울릉도)뿐만이 아니라, 마쓰시마(현재의 다케시마)도 조선령이 되었다는 놀랄만한 표제였다(2006D, P19).

이처럼 시모조는 외무성의 보고서에 있는 마쓰시마는 오늘날의 독도였다고 했으나, 이 견해도 언제 또 바뀔지도 모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3) 태정관의 「다케시마 외 일도」 판도 외 지령

1877년 메이지 시대의 정부라고도 해야 하는 국가 최고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은 「다케시마 외 일도(竹島外一島)」를 일본의 판도 외라고 하는 지령을 내렸다. 다케시마란 울릉도이고, 외 일도는 마쓰시마(독도)를 가리킨다. 이 중요한 지령을 수록한 「일본해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 편찬의 물음(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는 『공문록(公文錄)』 내무성 지부(內務省之部)와 『태정유전(太政類典)』에 수록되어 있는데, 오랫동안 그 존재는 알려지지 않다가 1987년이 되어 호리 가즈오(堀和生)에 의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¹⁹⁾

태정관 지령의 해석인데, 호리 가즈오는 외 일도를 오늘날의 독

18) 內藤正中·朴炳涉: 前掲書 33쪽, 박명섭·나이토세이추, 앞의 책, 18쪽.

19) 堀和生: 「1905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朝鮮史學會論文集』(24), 1987, 103쪽.

도라고 해석하고, 메이지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토 의로 했다고 해석했다.²⁰⁾ 또 나이토 세이추와 쓰카모토 다카시도 같은 해석을 했다.²¹⁾ 이에 대해 시모조는 그 해석에 대해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2004년 처음으로 외 일도는 불명이라는 견해를 발표했다. 그 이후 시모조는 자기의 설을 매년 바꾸고 있는데 그 견해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A. 「외 일도」는 불명

태정관에 의한 심사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었다. 「다케시마 외 일도」의 「일도」가 오늘날의 다케시마를 가리키는 것인가 아닌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그 「일도」가 다케시마였다고 한다면 「우리나라(本邦)와 관계가 없다」라고 할 리가 없다(2004A, P123).

B. 「외 일도」는 불명

태정관에 의한 심사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었다. 「외 일도」가 오늘날의 다케시마였다고 한다면, 「우리나라(本邦) 관계가 없다」라고 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2005A, P63).

C. 「외 일도」는 다케시마(독도)

지적 편찬을 위해 내무성으로부터 1876년에 다케시마(현재의 울릉도)에 관한 조회를 받은 시마네현은, 다케시마(현재의 울릉도)와 외 일도는 「우리나라(本邦)과는 관계가 없다(本邦關係無之)」라고 하여, 조선령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외 일도란 당시의 마쓰시마이며, 현재의 다케시마를 가리키고 있다. 그 답변을 기초로, 내무성이 청한 태정관이 제시한 판단도 같은 결론이었다.²²⁾

D. 「외 일도」는 다케시마(독도)

외 일도란 당시의 마쓰시마, 현재의 다케시마를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된다(2006D, P19).

E. 시마네현 「외 일도」는 다케시마(독도), 태정관 「외 일도」는 울릉도.

시마네 현이 문의한 「다케시마 타 일도(竹島他一島)」와 태정관이 판단한 「다케시마 타 일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공문록』에 첨부된 시마네현이 제출한 『이소다케시마 약도(磯竹島略圖)』에는, 현재의 다케시마와 이소다케시마(현재의 울릉도)가 그려져 있고, 시마네현은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일본령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태정관이 「관계없다」고 한 「다케시마 타 일도」는, 두 개의 울릉도를 가리키고 있으며, 현재의 다케시마는 관계가 없었던 것이다.(2007B, P2).

F. 시마네현 「외 일도」는 울릉도

시마네현은 「다케시마」뿐만 아니라, 「마쓰시마」도 울릉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다케시마 타 일도」는 모두 현재의 울릉도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다(2007D, P103).

이처럼 시모조는 주장을 여러 가지로 바꾸고 있으나, 『공문록』에 쓰인 외 일도인 마쓰시마가 독도라는 것은, 『공문록』 부속의 「이소다케시마 약도」를 보면 일목요연하다.²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시모조는, 마쓰시마는 울릉도라는 등의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나이토 세이추가 반론한 대로이다.²⁴⁾

6. 결어

시모조의 10년 이상에 걸친 독도에 대한 논설을 분석한 결과, 새로이 판명된 것은 시모조는 중요한 논점에 관해 때때로 자기의 주장을 바꾸고 있으며, 일관된 정설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다. 또 그는 갑자기 자신의 설을 바꾸어도, 일체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마치 과거 자신의 견해를 잊어버린 듯한 문체(文體)이다.

20) 堀和生: 前掲論文, 104쪽.

21) 塚本孝: 「竹島領有權問題の経緯」『調査と情報』(244), 1994, 5쪽.

22) 산인(山陰) 중앙신보사(中央新報社) 홈페이지, 「발신다케시마」2005.8.25.

<http://www.sanin-chuo.co.jp/tokushu/modules/news/article.php?storyid=105059145>

23) 内藤正中·朴炳涉: 前掲書, 324쪽. 박병설·세이추, 앞의 책, 303쪽.

24) 内藤正中: 「答えに窮した? 内藤教授の反論」

<http://www.han.org/a/half-moon/hml30.html#No.952>

그리고 판명된 것은 시모조는 자료를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결코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불리한 자료를 다루지 않고, 한국에 불리한 자료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테면 『울릉도사적』과 『울릉도도형(鬱陵島圖形)』 등이 그 전형으로, 후자를 제시하더라도 전자는 결코 제시하지 않는다. 또 자료의 인용도 자의적이어서, 자료의 일부만을 인용하여 때로는 자료 저자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해석까지도 하였다. 『여지지』에 쓰인 「일설에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한 섬이다.」의 해석이 그러하다. 『여지지』의 저자는 본설에서 우산도와 울릉도를 별개의 섬이라 했으나, 시모조는 두 섬을 동일한 섬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한 아전인수적인 해석을 토대로 하여 『동국문헌비고』는 「날조」되었다든가 「개찬」되었다고 하는 극론을 도출하고 있다. 토대가 잘못되었다면, 거기에 쌓은 논설은 모래 위의 누각이어서, 일순간에 붕괴한다. 시모조는 근본적으로는 자료를 객관적으로 보려는 자세가 결여된 것 같다. 그렇다면 연구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시모조를 연구자가 아니라 「활동가」라고 평하는데, 그의 논적(論敵)에 대한 공격은 그 측면을 두드러지게 해주고 있다. 시모조는 『최종보고서』에서 이케우치 사토시를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가 조사 연구를 진행하는 가운데 장애가 된 것이 있다. 이케우치 사토시에 의한 일련의 『인슈시청합기』 연구이다.」라고 비난을 했다(2007B, P4). 또 나이토 세이추에 대해서는, 「나이토 세이추의 다케시마 연구는, 다케시마 문제의 본질을 왜곡해 왔다. 꼭학아세, 나이토의 다케시마 연구의 문제점은 거기에 있다.」며 중상모략을 하였다(2005F, P21). 이처럼 자기의 주장과 다른 연구자에 대해, 「장애」 혹은 「꼭학아세」 등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양식 있는 연구자가 취할 행동이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모조의 방식과 주장은 시마네현과 우익계의 잡지 『정론』과 『제군』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러한 그의 주장이 우익 이외에 어디까지 받아들여질 것인가.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 그와 외무성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지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시모조 마사오 저작 일람

시모조 마사오 저작 일람

저작기	도서명, 잡지명	유	논문제	발행연	발행지
2008A	정론 08. 2	A	한국인연구자와의 만남에서 통감한 「다케시마 문제」의 불모	2008.02	산케이 신문사
2007E	정론 07.10	A	「사실인지 아닌지는 문제가 아니라」라고 잘라말한 한국 「독도분부」	2007.10	산케이 신문사
2007D	제군 ! 07. 9	A	일본의 영토 「다케시마」의 역사를 개관하게 한 자들이어	2007.09	문에출주사
2007C	정론 07.7	A	한일 역사 마찰의 원점은 「다케시마」에 있다	2007.07	산케이 신문사
2007B	「다케시마문제에 관한 조사연구」최종보고서	A	최종 보고에 있어 「다케시마의 날」조해보부터 2년	2007.03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
2007A	정론 07. 3	A	다케시마 문제를 삭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2007.03	산케이 신문사
2006E	정론 06.7	A	「다케시마 문제」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일본 정부	2006.07	산케이 신문사
2006D	발언 다케시마 환원 일한 권진을 향하여	BL	시모조 마사오·타쿠쇼쿠대학 교수에게 듣는다	2006.07	산인 중앙신문사
2006C	국경·부가 이 선을 그었는가	C	제 5장 다케시마 문제와 일본의 과제	2006.06	홋카이도 대학 출판회
2006B	내일을 향한 선택 06.4	A	다케시마 문제를 대의 발신하라	2006.04	일본정책연구 센터
2006A	제군 ! 06.4	A	다케시마는 일본영토가 아니며 일본해는 「통해」라고 한다	2006.04	문에출주사
2005H	사리바리	A	다케시마문제와 일본의 과제	2005.11	홋카이도 개발 문제 조사 연구소
2005G	도해 삼나라 일본의 영토 문제	C	격노하는 오타나리, 무관심한 일본	2005.08	도요 캐자이 신보사
2005F	현대 코리아 05. 7/8	A	속 다케시마문제연구의 과제	2005.07	현대 코리아
2005E	중앙공론 05. 6	A	신문의 논설사실을 읽고 비교하는 다케시마 문제	2005.11	중앙공론사
2005D	현대 코리아 05. 6	A	죽도문제 연구의 과제	2005.06	현대 코리아
2005C	정론 05. 6	A	일본이 비로소 손에 넣은 역사 외코카드	2005.06	산케이 신문사
2005B	만화 협 한류	A	다케시마 문제란 무엇인가	2005.09	진유사

2005A	「죽도」그 역사와 영토문제	B			2005.03	다케시마·북방영토 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 민회의
2004B	내일을 향한 선택 04. 6	A	다케시마 문제, 망언의 배경		2004.06	일본정책연구소 센터
2004A	죽도는 일한 어느쪽의 것인가	B			2004.04	문예춘추사
2003C	국제 개발학 연구 2권4호	A	『다케시마 기사』와 『춘관지』각서		2003.12	다쿠쇼쿠 대학
2003B	해외사정	A	다케시마·동해·그리고 역사인식 문제		2003.06	다쿠쇼쿠 대학
2003A	인문·자연·인간과학연구	A	공개강좌 다케시마 문제의 현상과 과제(시문)		2003.03	다쿠쇼쿠 대학
2002B	알고 있습니까? 일본의 섬	C			2002.12	자유국립사
2002A	월간일본 6권11호	A	다케시마 문제와 「동해문제」		2002.11	K&K프레스
2001A	국제 개발학 입문	A	조선반도-진통과 현대		2001.06	홍문당
2000B	현대 코리아 제406호	A	다케시마 문제의 현상과 과제		2000.11	일본 조신 연구소
2000A	국제 개발학연구 2권1호	A	다케시마 문제의 현대적 과제		2000.06	다쿠쇼쿠 대학
1999B	일한·역사극복을 향한 길	B			1999.08	진정사
1999A	현대 코리아 제391호	A	다케시마 문제, 김병렬에게 재 토론하다		1999.05	일본 조신 연구소
1998B	현대 코리아 제383호	A	다케시마 논쟁의 문제점		1998.07	일본 조신 연구소
1998A	한국논단(한국어) 108	A	죽도 문제의 문제점		1998.09	
1997B	현대 코리아 제372호	A	죽도 문제의 문제점(하)		1997.06	일본 조신 연구소
1997A	현대 코리아 제371호	A	죽도 문제의 문제점(상)		1997.05	일본 조신 연구소
1996C	한국논단(한국어) 84	A	북도논쟁3; 증거를 들어 실증하라		1996.08	
1996B	한국논단(한국어) 81	A	죽도가 한국 형이라는 근거는 왜곡돼 있다		1996.05	
1996A	현대 코리아 제 361호	A	다케시마 문제고		1996.05	일본 조신 연구소

류별 A:논집, B:단독저서, BL:Booklet, C:공저본

출전: 다케시마=북도논쟁(자료집) http://www.kr-jp.net/ronbun/ron_cl_list/shimojou.html

下條正男著作一覧

著作記号	図書名、雑誌名	類	論文表題	発行年	発行所
2008A	正論 08. 2	A	韓国人研究者との出会いで痛感した「竹島問題」の不毛	2008.02	産経新聞社
2007E	正論 07.10	A	「事実かどうかは問題でない」と言い切った韓国「独島本部」	2007.10	産経新聞社
2007D	諸君！07. 9	A	日本の領土「竹島」の歴史を改竄せし者たちよ	2007.09	文芸春秋社
2007C	正論 07.7	A	日韓歴史摩擦の原点は「竹島」にあり	2007.07	産経新聞社
2007B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A	最終報告にあたって「竹島の日」条例から二年	2007.03	竹島問題研究会
2007A	正論 07. 3	A	竹島問題を消すなんてとんでもない	2007.03	産経新聞社
2006E	正論 06.7	A	「竹島問題」の本質がわかっていない日本政府	2006.07	産経新聞社
2006D	発信 竹島 真の日韓親善に向けて	BL	下條正男・拓殖大学教授に聞く	2006.07	山陰中央新報社
2006C	国境・誰がこの線を引いたのか	C	第5章 竹島問題と日本の課題	2006.06	北海道大学出版会
2006B	明日への選択 06.4	A	竹島問題を対外発信せよ	2006.04	日本政策研究センタ
2006A	諸君！ 06.4	A	竹島は日本領土に非ず、日本海は「東海」だと言われたら	2006.04	文芸春秋社
2005H	しゃりばり	A	竹島問題と日本の課題	2005.11	北海道開発問題調査研究所
2005G	図解 島国日本の領土問題	C	激怒する隣国、無関心な日本	2005.08	東洋経済新報社
2005F	現代コリア 05. 7/8	A	続 竹島問題研究の課題	2005.07	現代コリア
2005E	中央公論 05. 6	A	新聞の論点 社説を読み比べる竹島問題	2005.11	中央公論新社
2005D	現代コリア 05. 6	A	竹島問題研究の課題	2005.06	現代コリア
2005C	正論 05. 6	A	日本が初めて手にした歴史外交カード	2005.06	産経新聞社
2005B	マンガ嫌韓流	A	竹島問題とは何か	2005.09	晋遊社
2005A	「竹島」その歴史と領土問題	B		2005.03	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島根県民会議

2004B	明日への選択 04. 6	A	竹島問題、妄言の背景	2004.06	日本政策研究センタ
2004A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B		2004.04	文芸春秋社
2003C	国際開発学研究 2巻4号	A	『竹島紀事』と『春官志』覚書	2003.12	拓殖大学
2003B	海外事情	A	竹島・東海・そして歴史認識問題	2003.06	拓殖大学
2003A	人文・自然・人間科学研究	A	公開講座 竹島問題の現状と課題(試論)	2003.03	拓殖大学
2002B	知っていますか、日本の島	C		2002.12	自由国民社
2002A	月刊日本 6巻11号	A	竹島問題と「東海問題」	2002.11	K&Kプレス
2001A	国際開発学入門	A	朝鮮半島-伝統と現代	2001.06	弘文堂
2000B	現代コリア 第406号	A	竹島問題の現状と課題	2000.11	日本朝鮮研究所
2000A	国際開発学研究 2巻1号	A	竹島問題の現代的課題	2000.06	拓殖大学
1999B	日韓・歴史克服への道	B		1999.08	展転社
1999A	現代コリア 第391号	A	竹島問題、金炳烈氏に再反論する	1999.05	日本朝鮮研究所
1998B	現代コリア 第383号	A	竹島論争の問題点	1998.07	日本朝鮮研究所
1998A	韓国論壇(韓国語) 108	A	죽도문제의 문제점	1998.09	
1997B	現代コリア 第372号	A	続・竹島問題考(下)	1997.06	日本朝鮮研究所
1997A	現代コリア 第371号	A	続・竹島問題考(上)	1997.05	日本朝鮮研究所
1996C	韓国論壇(韓国語) 84	A	독도논쟁3; 증거를 들어 실증하라	1996.08	
1996B	韓国論壇(韓国語) 81	A	죽도가 한국령이라는 근거는 왜곡돼 있다	1996.05	
1996A	現代コリア 第361号	A	竹島問題考	1996.05	日本朝鮮研究所

類別 A:論説、B:単独著書、BL:Booklet、C:共著本

出典:竹島=独島論争(資料集) http://www.kr-jp.net/ronbun/ron_cl_list/shimojou.html